

기업 환경책임지표의 개발과 평가: 국내 건설업을 중심으로*

홍종호**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및 평가 |
| II. 지표체계 | V. 결론 및 향후 연구 |
| III. 자료의 구축 | |

I. 서론

이 연구는 건설업 부문에 대한 환경책임지표(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dicators)를 개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업체에 적용,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지속가능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정부나 언론을 중심으로 건설업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1) 이러한 시상제도들은 업체의 환경성과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자체 평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계와 시민사회가 평가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환경성과를

* 이 연구는 2005-2006년 (사)환경정의 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자료 확보와 정리에 큰 도움을 준 환경정의의 김홍철, 임수진 활동가에게 감사한다. 기업 설문 조사를 대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차희원 교수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그리고 홍보동아리 EPRIS 소속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지표개발과 자료 해석 과정에서 자문에 임해 주신 강운산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일중 교수(동국대학교), 박명수 박사(한국고용정보원), 박창길 교수(성공회대학교), 반영운 교수(충북대학교), 한면희 교수(전북대학교)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hongjongho@snu.ac.kr

1)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 평가 및 시상제도로는 환경경영대상(매경/환경부),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한국능률협회), 환경주거문화대상(한국경제신문) 등이 있다.

포함하여 건설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들의 자체 제시 자료가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관련 자료들을 기존의 어떤 연구보다도 많이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했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업의 환경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Jamison et al., 2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다음의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한다. 첫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과연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가?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는 무엇인가? 전자는 학계에서 1990년대 이래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온 주제이다(노상환, 2004; 홍종호 등, 2005; 최중서, 2010; Porter, 1995; Cohen and Konar, 1997; EPA, 2000; Dasgupta et al., 2001, 2006).

우리의 연구는 후자와 관련되어 있다. 즉, 어떤 기업이 환경적 책임의 수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2006, 2011)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 대한 원칙과 성과지표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

문제는 많은 경우 개별 기업의 환경성과 환경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기존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료상의 신뢰성 문제는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황진택 등(2003)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 환경적 성과, 그리고 사회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표를 업종별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업종별 지표 개발이 갖는 의미는 있으나 자료를 기업의 자체 설문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박헌준 등(2004)과 홍정훈, 이수경(2006)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성과 자료를 경제정의실천연합 산하 경제정의 연구소가 개발한 경제정의 지수(KEJI Index)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수 역시 제한된 2개 항목에 대한 정부 자료,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설문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³⁾ 연구자 스스로도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한 환경보호 만족도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상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평가의 신

2) 이 연구에서는 GRI의 평가 지표를 포함하여 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평가 지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설업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 경실련에서는 건전하고 존경받을 만한 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1991년 이후 자체 개발한 경제정의 지수(KEJI Index)를 국내 상장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7가지의 항목, 즉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 그리고 환경보호만족도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마지막 항목인 환경보호만족도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해당 업체들의 환경성과와 환경적 책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언론보도 자료, 둘째, 해당 업체들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발간 자료, 셋째,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호평가 방식의 설문조사 자료가 그것이다. 마지막 자료의 경우 설문조사를 수행하되,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조사가 아닌 자신을 제외한 동종 업체에 대한 peer review 방식의 설문이라는 차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오늘날 산업계의 모든 업종에서 예외 없이 강조되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업종 중에서 건설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명확하다. 건설업은 개발연대 이래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하여 성장 속도가 둔화된 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여전히 건설업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OECD(2009)에 의하면 한국은 GDP 대비 건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995년부터 2006년 평균 8.9%에 달함으로써 OECD 30개 국가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특성상 대규모 택지 조성 및 막대한 자재 수요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환경부하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일반 생활폐기물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된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2007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10).

반면 건설업계의 환경책임 내지 사회적 책임 노력은 미미하다.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 2006년을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환경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또한 건설업계는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타 업종에 비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⁵⁾ 따라서 환경책임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일차적으로 건설업에 적용, 평가해 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사회적 요구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환경책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와 지수의 개발이 갖는 실제적인 의의는 무엇보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환경보전과 관련한 기업들의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평가대상 기업은 스스로의 환경책임성 정도를 동종 업종의 경쟁 기업과

4) 건설업계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009년, 현대건설이 2010년, 그리고 GS건설이 2011년에 발간을 시작하였다.

5) 저자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2010년 당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이 건설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단어로 표현하도록 주문한 결과, 국가성장의 기반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부패, 환경파괴, 난개발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를 향후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부동산 매입과 같은 시장에서의 거래 행위 시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 있어 환경위험 평가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기업들의 환경책임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성과 전문성, 지속성과 현장성에 기초한 기업 감시 운동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로 하여금 환경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행동양식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동인(動因)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건설업 부문을 평가하기 위해 구축한 환경책임 지표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제3절에서는 자료의 근거와 확보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제4절에서는 확보된 자료에 기초하여 수행한 건설업 상위 57개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 간략한 결론과 향후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II. 지표체계

건설업을 포함하여 산업계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로는 환경부와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환경경영대상,’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환경주거문화대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상제도들의 공통점은 기업들로부터 자체 평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한다는 것이며, 시상방식은 우수기업만을 선발하여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환경경영대상의 평가지표를 보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기본항목과 더불어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율, 본사와 현장간의 환경경영 시스템의 피드백 정도, 현장 환경관리노력, 친환경적 건설공법 도입 및 운영항목 등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평가방식은 평가영역을 크게 환경경영과 경영성으로 대별하고, 특히 향후 개선 계획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이나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환경정의적 차원의 평가 요소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연구는 단순한 기업의 환경성과를 넘어서 건설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대한 환경책임성 여부를 평가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책임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환경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광범위하면서 엄밀한 지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현실적 제약성 사이에 많은 괴

〈표 1〉 환경경영대상 평가 항목구성 및 배점기준

건설업			배점
환경 경영 (200)	시스템 구축과 운영 (130)	① 의식 및 관심도 ② 시스템 운영관리 ③ 투자: 환경관리비용 ④ 교육 및 훈련 ⑤ 정보 ⑥ 기술 및 공법 ⑦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대외 환경보전활동, 협력업체 관리 ⑧ 기타: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 법규, 환경사고, 민원현황	15 35 15 10 10 20 15 10
	개선계획 (70)	① 경영시스템: 운영경과에 따른 분석과 계획수립 ② 투자: 환경관리비 집행계획 ③ 기술 및 공법	40 20 10
경영 성과 (300)	경영성과 평가 (200)	① 주변지역과의 조화 ②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 : 주요 환경인자 분석의 적절성, 환경관리 이행상황 평가의 충실성 ③ 분야별 오염관리현황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기타	40 85 75
	개선계획 (100)	① 환경친화적 기획 및 설계: 주변지역 환경부하 감소계획 ②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계획 ③ 오염저감 개선계획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기타	20 45 35

자료: 환경부, 매일경제(2005).

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다수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면서 차별화된 환경책임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⁶⁾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한 환경책임지표에 대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영역은 크게 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기업의 환경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환경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 환경적 약자에 대한 불이익의 차단 및 보상 노력 등 사회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환경시상제도의 경우, 전자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후자는 무시되거나 극히 미미하게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책임성 평가의 정신에 보다 부합하는 지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⁷⁾

6) 우리 연구의 연구진은 보다 객관적인 환경책임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10개월에 걸쳐 총 7차례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회의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와 다수의 개별 면담을 거쳐 이를 확정하였다.

7) Jamison, et al.(2005)에서는 기업환경책임의 주요 요소로서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헌신, 이해관계자의 참여, 관측, 정보공개 및 검증, 투명성,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정부 규제 이상의 자발적 노력을 들고 있다.

〈표 2〉 환경책임지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환경경영	환경경영체제 활성화 정도 환경교육 및 환경재해 예방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 회사 내 별도의 환경관리 부서 설치
환경성과	대기(분진) 및 수질 관리 건축폐자재 관리 소음 및 진동 관리 각종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 건설공법 도입
사회책임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및 지출 환경문제 관련 지역민원 예방 및 처리 건설현장 주변 거주 어린이, 노약자 등 약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 고용 정도 산업재해 발생 정도 부당경영행위

평가영역 중 환경경영 영역은 환경성과의 내적 충실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환경성과 영역은 외적 충실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경영 영역은 건설업만이 아닌 여타 산업부문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이다. 해당 기업의 경영목표 및 조직이 얼마나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환경성과 영역은 기업 내 환경경영의 정도가 외부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자재 및 공법에 대한 도입 정도와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책임 영역은 기존의 환경성과 평가체계와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는 평가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책임지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정 정도 포함하는 광의의 지표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보전 지출은 물론, 장애인 고용 및 산업재해 발생, 나아가 기업의 부당경영행위까지 포함시키고자 하였다.⁸⁾ 다시 말해 기업의 환경책임 정도를 환경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성과는 직간접적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책임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작업장 내 오염된 공기질 등,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당경영을 일삼는 기업의 환경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III. 자료의 구축

1. 평가 대상 및 자료 수집 배경

우리 연구에서는 최근 3개년 순위 평균을 기준으로 시공능력 평균 60위 이상에 해당하는 57개 건설업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 13,202개사(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및 건설업 등록분포현황) 중 0.43%에 해당하는 업체들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건설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업체들의 명단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선정 근거는 평가 자료의 제약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합건설업체 총 36개사 중 31개사가 이번 연구의 평가대상인 상위 57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상장 종합건설업체는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상장사 5개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60대 건설업체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또한 이 연구의 평가대상 57개 건설사 중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총 38개 업체이다. 다시 말해 38개 업체 중 상장 종합건설업체인 31개사를 제외한 7개 기업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면서 수주능력평가 상위 60대 기업으로 본 연구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건설업체들의 환경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출처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환경관련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첫째, 해당 건설업체들의 과거 5년간 환경관련 언론보도 자료, 둘째, 해당 건설업체들의 지난 5년간 환경 및 사회적 책임관련 정부발간 자료, 셋째, 해당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평가 방식의 설문조사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업체들로부터 직접 설문을 통해 얻는 자료가 갖는 주관성과 자기선택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언론보도 자료

해당 업체들에 대한 환경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온라인 언론기사 검색사이트(KINDS)를 통해 구축하였다. 기간은 연구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설정하여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 까지로 제한하였다. 관련 기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환경 관련 주제어를 통해 관련 기사를 모두 검색한 후, 각각의 기사 내용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검색 대상 언론으로는 신문과 TV를 포함한 각종 언론기관의 공신력과 영향력, 지역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총 53개 매체를 선정하였다.

〈표 3〉 평가대상 기업과 시공능력 순위

순위	업체명	2003	2004	2005	평균
1	삼성물산	3	1	1	1.67
2	현대건설	1	2	3	2
3	대우건설	2	3	2	2.33
4	대림산업	5	5	4	4.67
5	지에스건설	4	6	5	5
6	현대산업개발	6	4	6	5.33
7	포스코건설	7	7	7	7
8	롯데건설	8	8	8	8
9	두산산업개발	-	9	10	9.5
10	한진중공업	10	10	13	11
11	에스케이건설	12	14	11	12.33
12	쌍용건설	14	12	12	12.67
13	두산중공업	9	18	14	13.67
14	삼성중공업	11	13	18	14
15	금호산업	19	17	9	15
16	태영	13	16	17	15.33
17	동부건설	16	19	16	17
18	벽산건설	15	20	19	18
19	한화건설	23	25	15	21
20	풍림산업	22	22	20	21.33
21	코오롱건설	17	21	27	21.67
22	삼환기업	20	23	24	22.33
23	극동건설	26	15	28	23
24	타이세이건설	37	11	22	23.33
25	계룡건설산업	25	24	23	24
26	부영	18	26	34	26
27	삼부토건	27	27	26	26.67
28	경남기업	30	30	21	27
29	삼성엔지니어링	24	36	25	28.33
30	고려개발	31	29	29	29.67
30	한신공영	28	28	33	29.67
32	KCC건설	32	32	32	32
33	한라건설	38	35	30	34.33
34	금광기업	36	34	35	35
35	동양건설산업	43	38	31	37.33
36	삼호	41	41	40	40.67
37	남광토건	42	39	43	41.33
38	삼성에버랜드	39	31	57	42.33
38	임광토건	40	40	47	42.33
40	신성건설	46	47	38	43.67
41	한일건설	45	43	44	44
42	신세계건설	51	48	37	45.33
42	중앙건설	44	46	46	45.33

순위	업체명	2003	2004	2005	평균
44	화성산업	52	44	41	45.67
45	이수건설	55	50	42	49
46	남양건설	57	52	39	49.33
47	신안종합건설	34	45	71	50
48	성원건설	48	51	52	50.33
49	신동아건설	63	53	45	53.67
50	우방	42	35	91	56
51	성지건설	50	70	50	56.67
52	신일건설	56	55	63	58
53	보성건설	70	54	51	58.33
54	한국전력기술	61	57	58	58.67
55	범양건설	68	49	61	59.33
56	월드건설	64	62	53	59.67
57	대우자동차판매	71	60	49	60

〈표 4〉 검색 대상 언론사

분류	언론사
중앙 종합일간지 (총 10종)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공중파 TV(총 3개사)	KBS, MBC, SBS
지방 종합일간지 (총 32종)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빛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중앙 경제일간지 (총 7종)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제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모든 기사는 크게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주요 주제어별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자세한 분류방법이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 총 언론 검색기사 64,904건 중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건설업체의 환경책임 평가에 유효한 2,406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중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건수는 885건인 반면, 부정적인 보도 건수는 1,521건으로 추계되어 부정적인 기사

3. 정부발간자료

앞에서 설정한 환경책임지표의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해당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수집,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설업체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자료들 중 2000년 이

〈표 5〉 언론보도기사 분류 기준

분류	주제어	기사 내용
긍정	환경경영	환경경영 혹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난 기사 예: ISO 인증 획득, 표창, 수상, 실적, 공헌 등
	환경성과	오염배출 감소, 환경투자, 녹지공간 확보, 친환경 자재 및 공법 활용, 건축폐자재 적정 처리 등 토목 및 건축과 관련된 각종 긍정적인 환경성과 기사
	사회책임	지역민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환경약자 배려, 지역을 위한 환경보전 활동 및 지출, 장애인 고용 등 지역에서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한 기사
부정	불법행위 및 처벌	각종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기사 예: 불법매립, 불법소각, 형사고발, 벌과금, 경고, 오염배출 등
	분쟁 및 소송	주민들의 불만에 따른 민원제기와 관련한 기사, 건설행위로 인한 각종 분쟁 혹은 소송과 관련된 기사 예: 주민집단민원제기, 환경분쟁
	부당경영	과장광고, 부당광고,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담합행위, 회계부정, 부당공시 등 건설사의 부당/불법 경영 행위와 관련된 기사
	환경사고	각종 환경사고 및 재해와 관련된 기사 예: 새집증후군에 따른 직접적인 인명피해, 건설관련 환경재해 등

〈표 6〉 정부 및 해당기관 발간 건설업 환경책임성 관련 자료

자료 주체	자료명	자료 성격
환경부 대기보전국	건설업체 신인도 심사 자료	관급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나 적격 심사시 활용되는 자료로서, 건설사의 각종 환경관련법 위반 현황 및 행정 조치와 관련하여 각 시도별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작성
인증원 및 해당 기업	건설업체 ISO 인증 여부 및 환경전담부서 자료	2005년 말 현재 ISO 14001 획득 여부, 환경관련 전담부서 및 담당자 존재 여부 확인
노동부 산업안전과	건설업체 산재사업장 고시 자료	사망재해 2명 이상 및 중대 산재 발생 사업장,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3~5% 사업장, 중대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2회 이상) 사업장 등
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	건설업체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자료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 여부 확인.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장애인 고용규정에 의하여 의무고용률 적용

후 이용 가능한 자료는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설문조사자료

이상에서 설명한 언론보도 및 정부 발간과 같은 자료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와 같이 객관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언론 보도나 정부 자료 역시 모든 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고 지표 분석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

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이 연구의 특징은 해당 기관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학평가 등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peer group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연구 여건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과 대상 건설업체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의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상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설문방식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설문 응답자들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응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발생하였다. 전자의 경우 두 달 이상의 설문지 작성기간 동안 건설관련 연구소 전문가와 건설업체 환경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문지를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경쟁기업간의 상호 평가시 설문 응답자가 질문 내용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을 것을 고려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 방식을 무순으로 일정 기업수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즉, 절대평가 방식을 희생하는 대신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설문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되나 응답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응답 회피 문제는 실제로 다수의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자료 수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⁹⁾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조사대상 57개 기업 중 22개 기업(응답률 39%)으로부터 설문응답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IV. 분석결과 및 평가

1. 기본 전제

건설업체의 환경책임 평가를 위해 우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의 특성상 기업별 상대적인 순위 제시가 불가피한 만큼,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기업을 3개 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즉, 시공능력평가액 1조 이상, 5,000천억 이상, 그리고 5,000억 이하를 기준으로 기업들을 분류한 후 해당 기업군 내에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개별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의 수는 각각 16개, 16개, 25개 기업들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9) 연구가 환경단체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 내지 거부감을 갖는 기업의 담당자가 많았음을 설문조사 결과를 직접 수거한 면접원 학생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액이 가장 높은 제1기업군에 속하는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임을 알 수 있다. 제2, 제3 기업군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개별 건설업체로 존재하는 기업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평가결과는 일차적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상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일부 평가영역별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평가는 평가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건설업의 환경책임 평가를 위해 수집한 3개의 자료 출처에 기초하여 기업 상대 등위를 도출한 결과이다. 이 때 각 출처별로 동일한 비중을 두기 위해 1/3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반면 평가영역별 개별평가는 이 연구 환경책임지표 체계상의 3개 평가영역인 환경경영, 환경성과, 그리고 사회책임별로 기업별 등위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평가영역에 따라 기업 간에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시공능력과 사회책임 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등도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종합평가

(1) 언론보도자료 분석결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환경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기업별, 긍정 및 부정별, 주제어별, 연도별로 세분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전체 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별로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를 모두 합산하여 그 비율(긍정/부정)을 계산함으로써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때 동일 기사 내용을 다수의 언론 매체가 보도하였을 경우 이것은 해당 기사

〈표 7〉 건설업체 제1기업군 언론보도자료 평가순위

언론자료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기업명	총기사	긍정	부정	비율
1	13	두산중공업	43	30	13	2.31
2	12	쌍용건설	54	35	19	1.84
3	9	두산산업개발	52	26	26	1
4	14	삼성중공업	135	65	70	0.93
5	4	대림산업	120	54	66	0.82
6	6	현대산업개발	100	44	56	0.79
7	1	삼성물산	166	64	102	0.63
8	7	포스코건설	53	18	35	0.51
9	15	금호산업	31	10	21	0.48
10	3	대우건설	165	52	113	0.46
11	5	지에스건설	126	38	88	0.43
12	16	태영	10	3	7	0.43
13	8	롯데건설	61	16	45	0.36
14	2	현대건설	172	45	127	0.35
15	10	한진중공업	44	10	34	0.29
16	11	에스케이건설	78	13	65	0.2

〈표 8〉 건설업체 제2기업군 언론보도자료 평가순위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기업명	총기사	긍정	부정	비율
1	28	삼성엔지니어링	65	54	11	4.91
2	21	한화건설	120	62	58	1.07
3	19	타이세이건설	0	0	0	1
4	25	계룡건설산업	23	10	13	0.77
5	26	경남기업	8	3	5	0.6
6	17	동부건설	32	10	22	0.45
7	27	부영	105	30	75	0.4
8	18	벽산건설	65	13	52	0.25
9	23	코오롱건설	31	6	25	0.24
10	30	고려개발	11	2	9	0.22
11	32	케이씨씨건설	12	2	10	0.2
12	20	풍림산업	20	3	17	0.18
13	31	한신공영	35	5	30	0.17
14	24	극동건설	15	2	13	0.15
15	29	삼부토건	17	2	15	0.13
16	22	삼환기업	16	1	15	0.07

내용의 비중이 그 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안 자체의 중요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도가 기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동일 기사 건수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였다. 다시 말해 동일 사안에 대한 기사 건수를 모두 합산하여 비율 산정에 포함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합산 방식은 아직까지 건설업의 환경책임 지표 및 지수 산정에 대한 유의미한 선행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자의적인 가중치 부여에 따른 오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사 건수에 기초한 이러한 성과지수 계산방식은 언론에 드러난 정보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도출된 기업군별 기업 순위가 〈표 7〉~〈표 9〉에 제시되어 있다.

(2) 정부발간자료 분석결과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환경관련 발간자료는 총 4종이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이 연구의 평가대상 건설업체들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 산재사업장 공시, 신인도 심사(수질, 대기, 소음 및 진동, 폐기물 규제위반 조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90년대에는 신인도 심사 등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표 9〉 건설업체 제 3기업군 언론보도자료 평가순위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기업명	총기사	긍정	부정	비율
1	56	한국전력기술	9	9	0	9
2	52	보성건설	18	15	3	5
3	36	삼성에버랜드	60	47	13	3.62
4	42	신세계건설	9	7	2	3.5
5	35	동양건설산업	25	17	8	2.13
6	34	금광기업	11	7	4	1.75
7	47	남양건설	19	10	9	1.11
8	57	월드건설	25	13	12	1.08
9	40	신성건설	1	1	0	1
10	50	신동아건설	16	6	10	0.6
11	44	화성산업	18	5	13	0.38
12	46	이수건설	8	2	6	0.33
13	33	한라건설	21	5	16	0.31
14	39	임광토건	26	5	21	0.24
15	41	한일건설	9	1	8	0.13
16	37	남광토건	39	3	36	0.08
17	38	삼호	14	1	13	0.08
17	54	대우자동차판매	14	1	13	0.08
19	49	성원건설	48	3	45	0.06
20	43	중앙건설	1	0	1	0
20	45	신안종합건설	1	0	1	0
20	48	우방	11	0	11	0
20	51	성지건설	3	0	3	0
20	53	범양건영	2	0	2	0
20	55	신일건설	15	0	15	0

관심과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인 (주)부영의 경우 5년에 걸쳐 총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7개 업체 중 48개 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조직 내에 환경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업체는 총 17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아래의 〈표 10〉~〈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공능력이 우수할수록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은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적발 건수 간에 일정한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 설문조사자료 분석결과

설문응답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가 〈표 13〉~〈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기업별 전체 순위는 응답자가 각 문항별로 적어낸 10개 우수기업에 선정된 횟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에 기초하

〈표 10〉 건설업체 제1기업군 공공기관 발간자료 평가순위

공공기관 자료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기업명	장애인 고용위반건수	산재사업장 고시 건수	ISO 인증여부	환경관련 부서 및 담당자 배치여부	신인도 위반건수	종합건수
1	4	대림산업	0	0	0	0	0	0
1	9	두산산업개발	0	0	0	0	0	0
1	13	두산중공업	0	0	0	0	0	0
1	1	삼성물산	0	0	0	0	0	0
1	14	삼성중공업	0	0	0	0	0	0
1	16	태영	0	0	0	0	0	0
1	10	한진중공업	0	0	0	0	0	0
8	5	지에스건설	0	1	0	0	0	1
8	7	포스코건설	0	1	0	0	0	1
8	2	현대건설	0	1	0	0	0	1
11	15	금호산업	0	1	0	0	1	2
11	3	대우건설	1	1	0	0	0	2
11	11	에스케이건설	0	0	0	0	2	2
14	8	롯데건설	0	1	0	0	2	3
14	12	쌍용건설	0	1	0	0	2	3
14	6	현대산업개발	1	1	0	0	1	3

〈표 11〉 건설업체 제2기업군 공공기관 발간자료 평가순위

공공기관 자료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기업명	장애인 고용위반건수	산재사업장 고시 건수	ISO 인증여부	환경관련 부서 및 담당자 배치여부	신인도 위반건수	종합건수
1	26	경남기업	0	0	0	0	0	0
1	25	계룡건설산업	0	0	0	0	0	0
1	30	고려개발	0	0	0	0	0	0
1	17	동부건설	0	0	0	0	0	0
1	29	삼부토건	0	0	0	0	0	0
1	31	한신공영	0	0	0	0	0	0
7	18	벽산건설	0	0	0	0	1	1
7	28	삼성엔지니어링	0	1	0	0	0	1
7	22	삼환기업	0	0	0	0	1	1
7	32	케이씨씨건설	0	1	0	0	0	1
7	20	풍림산업	0	1	0	0	0	1
7	21	한화건설	1	0	0	0	0	1
13	24	극동건설	0	0	0	0	2	2
13	19	타이세이건설	0	0	1	1	0	2
15	23	코오롱건설	3	0	0	0	0	3
16	27	부영	3	0	1	0	5	9

〈표 12〉 건설업체 제3기업군 공공기관 발간자료 평가순위

공공기관 자료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기업명	장애인 고용위반건수	산재사업장 고시 건수	ISO 인증여부	환경관련 부서 및 담당자 배치여부	신인도 위반건수	종합건수
1	33	한라건설	0	0	0	0	0	0
2	34	금광기업	0	0	0	1	0	1
2	37	남광토건	0	0	0	0	1	1
2	54	대우자동차판매	0	0	0	0	1	1
2	36	삼성에버랜드	0	0	0	1	0	1
2	38	삼호	1	0	0	0	0	1
7	35	동양건설산업	0	0	1	1	0	2
7	52	보성건설	1	0	0	1	0	2
7	49	성원건설	0	0	1	1	0	2
7	51	성지건설	0	0	0	1	1	2
7	50	신동아건설	2	0	0	0	0	2
7	40	신성건설	2	0	0	0	0	2
7	48	우방	1	0	1	0	0	2
7	56	한국전력기술	0	0	1	1	0	2
7	44	화성산업	0	0	1	1	0	2
16	47	남양건설	3	0	0	0	0	3
16	45	신안종합건설	1	0	0	1	1	3
16	39	임광토건	3	0	0	0	0	3
19	42	신세계건설	4	0	0	0	0	4
19	46	이수건설	3	0	0	1	0	4
19	43	중앙건설	2	0	1	1	0	4
22	57	월드건설	3	0	0	1	1	5
23	55	신일건설	4	0	1	1	0	6
23	41	한일건설	5	0	0	1	0	6
25	53	범양건설	4	1	1	1	0	7

여 도출하였다. 특히 제1기업군의 경우 평균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호평가방식에 기초한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설문조사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응답률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와 같이 수주능력 상위 57개 업체에 대한 상호평가(모든 문항에 있어 자신을 제외하고 응답하는 방식)를 통해 기업들의 환경책임 분석하고자 할 경우, 응답자의 응답률이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결과적으로 총 22개 업체가 설문문에 응답하였다. 면접원이 전화 및 방문조사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다수의 기업이 정보의 부족, 응답에 따른 부담, 무조건적 거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응답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때 과연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응답에 협조적일까 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하

〈표 13〉 건설업체 제1기업군 설문조사자료 순위

순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기업명	선정수
1	7	포스코건설	165
2	1	삼성물산	161
3	4	대림산업	143
4	5	지에스건설	134
5	11	에스케이건설	126
6	3	대우건설	111
7	2	현대건설	95
8	9	두산산업개발	89
9	6	현대산업개발	67
10	15	금호산업	64
11	8	롯데건설	61
12	12	쌍용건설	42
13	16	태영	34
14	14	삼성중공업	31
15	13	두산중공업	25
16	10	한진중공업	18

〈표 14〉 건설업체 제2기업군 설문조사자료 순위

순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기업명	선정수
1	21	한화건설	99
2	20	종림산업	62
3	17	동부건설	52
4	23	코오롱건설	38
5	29	삼부토건	23
6	31	한신공영	21
7	26	경남기업	20
8	30	고려개발	19
9	18	벽산건설	18
10	28	삼성엔지니어링	40
11	25	계룡건설산업	14
12	19	타이세이건설	9
13	22	삼환기업	7
13	32	케이씨씨건설	7
15	24	극동건설	6
16	27	부영	0

나의 가설은 수주능력이 우수한 기업은 스스로 설문 결과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질문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주능력을 기초로 기업들을 상중하로 분류하여 각각의 응답률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가설과는 상이하게 수주능력과 응답률 간에는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

〈표 15〉 건설업체 제3기업군 설문조사자료 순위

순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기업명	선정수
1	36	삼성에버랜드	40
2	38	삼호	37
2	42	신세계건설	37
4	40	신성건설	25
4	56	한국전력기술	25
6	54	대우자동차판매	20
7	50	신동아건설	18
8	46	이수건설	12
9	43	중앙건설	11
10	33	한라건설	10
11	34	금광기업	9
11	37	남광토건	9
13	39	임광토건	8
14	45	신안종합건설	7
14	48	우방	7
14	52	보성건설	7
17	41	한일건설	4
17	44	화성산업	4
17	47	남양건설	4
20	35	동양건설산업	3
21	49	성원건설	2
21	51	성지건설	2
21	55	신일건설	2
21	57	월드건설	2
25	53	범양건설	1

되었다.

(4) 종합 평가결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종합 순위로 추계한 결과가 〈표 16〉에 나타나 있다. 시공능력이 가장 큰 제 1기업군에서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4위인 대림산업이 1위에 선정되었다. 시공능력이 가장 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위에 올랐다. 반면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SK건설, 롯데건설 등은 동일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도 종합순위에 있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들 중 한진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자료 조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공기관 자료에서는 지적 사항이 거의 없었음을 감안할 때 한 두 번의 적발이 순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16〉 건설업체 제1기업군 종합 평가결과

순위	시공능력평 가액순위	기업명	설문조사 자료순위	공공기관 자료순위	언론보도 자료순위	순위평균
1	4	대림산업	3	1	5	3
2	1	삼성물산	2	1	7	3.33
3	9	두산산업개발	8	1	3	4
4	7	포스코건설	1	8	8	5.67
4	13	두산중공업	15	1	1	5.67
6	14	삼성중공업	14	1	4	6.33
7	5	지에스건설	4	8	11	7.67
8	16	태영	13	1	12	8.67
9	3	대우건설	6	11	10	9
10	12	쌍용건설	12	14	2	9.33
11	2	현대건설	7	8	14	9.67
11	6	현대산업개발	9	14	6	9.67
13	15	금호산업	10	11	9	10
14	10	한진중공업	16	1	15	10.67
14	11	에스케이건설	5	11	16	10.67
16	8	롯데건설	11	14	13	12.67

〈표 17〉 건설업체 제2기업군 종합 평가결과

순위	시공능력평 가액순위	기업명	설문조사 자료순위	공공기관 자료순위	언론보도 자료순위	순위평균
1	17	동부건설	3	1	6	3.33
1	21	한화건설	1	7	2	3.33
3	26	경남기업	7	1	5	4.33
4	25	계룡건설산업	11	1	4	5.33
5	28	삼성엔지니어링	10	7	1	6
6	30	고려개발	8	1	10	6.33
7	31	한신공영	6	1	13	6.67
8	20	풍림산업	2	7	12	7
8	29	삼부토건	5	1	15	7
10	18	벽산건설	9	7	8	8
11	19	타이세이건설	12	13	3	9.33
11	23	코오롱건설	4	15	9	9.33
13	32	케이씨씨건설	13	7	11	10.33
14	22	삼환기업	13	7	16	12
15	27	부영	16	16	7	13
16	24	극동건설	15	13	14	14

〈표 18〉 건설업체 제3기업군 종합 평가

순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업명	설문조사	공공기관	언론순위	순위평균
1	36	삼성에버랜드	1	2	3	2
2	56	한국전력기술	4	7	1	4
3	34	금광기업	11	2	6	6.33
4	40	신성건설	4	7	9	6.67
5	38	삼호	2	2	17	7
6	52	보성건설	14	7	2	7.67
7	33	한라건설	10	1	13	8
7	50	신동아건설	7	7	10	8
9	42	신세계건설	2	19	4	8.33
9	54	대우자동차판매	6	2	17	8.33
11	37	남광토건	11	2	16	9.67
12	35	동양건설산업	20	7	5	10.67
13	44	화성산업	17	7	11	11.67
14	46	이수건설	8	19	12	13
15	47	남양건설	17	16	7	13.33
16	48	우방	14	7	20	13.67
17	39	임광토건	13	16	14	14.33
18	49	성원건설	21	7	19	15.67
19	43	중앙건설	9	19	20	16
19	51	성지건설	21	7	20	16
21	45	신안종합건설	14	16	20	16.67
22	57	월드건설	21	22	8	17
23	41	한일건설	17	23	15	18.33
24	55	신일건설	21	23	20	21.33
25	53	범양건설	25	25	20	23.33

3. 평가영역별 평가

여기에서는 환경경영, 환경성과, 사회책임 등, 3개의 평가영역별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듯 평가영역별로 평가결과를 제시하게 되면 기업별로 어떠한 영역에서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경영이나 환경성과 영역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인 기업이 사회책임 영역에서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영역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료, 공공기관 자료, 설문 자료에 나타난 결과 중에서 개별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재정리하는 자료 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책임 영역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다른 평가사례들과 비교하여 사회책임 영역은 이 연구에서 차별화된 항목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책임평가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될 분야이기

〈표 19〉 사회적 책임 평가 영역 제1기업군 평가결과

사회책임 종합 순위	기업명	시공능력 평가액	언론	공공기관	설문	언론 순위	공공기관 순위	설문 순위
1	대림산업	4	0.288	0	39	3	1	4
1	삼성물산	1	0.208	0	42	5	1	2
3	두산중공업	13	0.889	0	12	1	1	13
3	에스케이건설	11	0.14	0	35	8	1	6
3	지에스건설	5	0.228	1	42	4	9	2
6	포스코건설	7	0.19	1	49	6	9	1
7	두산산업개발	9	0.043	0	30	15	1	7
7	삼성중공업	14	0.462	0	8	2	1	14
9	한진중공업	10	0.107	0	4	10	1	16
10	대우건설	3	0.054	2	38	12	13	5
10	현대건설	2	0.048	1	29	13	9	8
10	현대산업개발	6	0.161	2	21	7	13	10
13	금호산업	15	0.048	1	25	14	9	9
13	태영	16	0	0	7	16	1	15
15	롯데건설	8	0.108	2	20	9	13	11
16	쌍용건설	12	0.059	2	15	11	13	12

〈표 20〉 사회적 책임 평가 영역 제2기업군 평가결과

사회책임 종합순위	기업명	시공능력 평가액	언론	공공기관	설문	언론 순위	공공기관 순위	설문 순위
1	동부건설	17	0.2857	0	12	7	1	4
2	경남기업	26	0.6	0	8	5	1	8
2	계룡건설산업	25	0.625	0	5	3	1	10
4	타이세이건설	19	1	0	3	2	1	12
4	한화건설	21	0.625	1	31	3	11	1
6	삼부도건	29	0	0	11	10	1	5
7	벽산건설	18	0.0238	0	9	9	1	7
8	삼성엔지니어링	28	1.2222	1	10	1	11	6
9	고려개발	30	0	0	5	10	1	10
10	극동건설	24	0	0	3	10	1	12
10	풍림산업	20	0	1	17	10	11	2
12	한신공영	31	0.1154	0	1	8	1	15
13	삼환기업	22	0	0	2	10	1	14
14	코오롱건설	23	0	3	13	10	15	3
15	케이씨씨건설	32	0	1	7	10	11	9
16	부영	27	0.4308	3	1	6	15	15

때문이다. 평가 결과가 〈표 19〉~〈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언론 보도를 보면 기업군을 막론하고 전체 57개 기업 중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기업은 4개 기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언론 보도의 특성상 부정적인 보도가 다수를 이루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더

〈표 21〉 사회적 책임 평가 영역 제3기업군 평가결과

사회책임 종합순위	기업명	시공능력 평가액	언론	공공기관	설문	언론 순위	공공기관 순위	설문 순위
1	삼성에버랜드	36	9.667	0	19	1	1	1
2	금광기업	34	1	0	8	4	1	8
3	한국전력기술	56	1	0	7	4	1	9
4	화성산업	44	1	0	3	4	1	15
5	한라건설	33	0.2	0	9	14	1	6
6	대우자동차판매	54	0	0	10	18	1	3
6	신성건설	40	1	2	10	4	15	3
8	보성건설	52	2	1	6	3	11	10
9	신안종합건설	45	1	1	6	4	11	10
9	중앙건설	43	1	2	9	4	15	6
11	신세계건설	42	3.5	4	14	2	22	2
12	삼호	38	0	1	10	18	11	3
13	남광토건	37	0.032	0	3	17	1	15
14	성지건설	51	0	0	3	18	1	15
15	동양건설산업	35	0.143	0	1	15	1	20
16	성원건설	49	0	0	1	18	1	20
16	우방	48	0	1	6	18	11	10
18	신동아건설	50	0.1	2	4	16	15	14
19	임광토건	39	0.238	3	3	13	18	15
20	범양건영	53	1	5	1	4	24	20
21	남양건설	47	0.333	3	1	11	18	20
21	월드건설	57	0.25	3	0	12	18	25
21	이수건설	46	0	3	5	18	18	13
24	한일건설	41	0	5	3	18	24	15
25	신일건설	55	0	4	1	18	22	20

라도 환경경영 영역 및 환경성과 영역에 비해 사회적 책임 영역의 긍정 보도 건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 중의 하나는 기업의 규모와 사회적 책임의 상관성에 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연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건설업체가 사회적 책임평가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별 자료 출처별로 평가 결과와 시공능력평가 순위와의 상관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발간 자료나 상호 평가 설문조사 자료에서와는 달리, 언론보도 자료에 기초한 상관계수 추정 결과는 -0.162 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소한 언론보도 평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수행 실적이 오히려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규모가 큰 건설업체일수록 사회적 책임 영역에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책임성을 환경책임지표를 도출함으로써 구체화하고, 이를 우리나라 건설업에 적용, 평가함으로써 기업 차원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로의 이행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기업 대상 환경성과 평가지표와는 차별화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강조된 지표체계를 구축하되,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검토하여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거쳤다. 특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심층적인 면담과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수정,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전에 건설업종의 환경성과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언론보도 자료와 정부발간 자료, 업종 내 상호 평가 설문자료를 광범위하게 구축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평가대상 기업들에 대한 환경관련 자료의 근본적인 제약으로 인해 환경성과 및 사회책임에 대한 절대평가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한 기업간 상대평가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문의 환경책임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노력이 거의 없거나 설문조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나타나는 환경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감안해 볼 때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환경책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연구에서는 수주능력평가액 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를 3개 기업군으로 대별하여 종합평가 및 일부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정부발간 자료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체로 수주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언론보도 자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있어서는 사회책임 영역에 있어 오히려 수주능력과 비교하여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주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언론의 보다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이들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책임 노력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환경책임 지표와 지수 개발 연구가 보다 의미 있는 작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환경관련 정보 공개 노력이 전제조건이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의미한 자료들이 축적될수록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기업별 상대 평가 방식을 넘어 실제로 기업의 환경책임 달성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

다.

나아가 여기에서 제시된 동일한 평가영역과 항목을 갖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건설업체의 동일 업체들에 대해 재평가 과정을 수행하는 것도 흥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들이 공개된 이후 실제로 해당 기업들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환경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건설업 대상 환경책임 평가 연구가 환경책임에 충실한 기업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산업안전과. 각년도. 건설업체 산재사업장 고시 자료.
- 노상환. 2004. 『환경친화지정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13(4).
- 박헌준·권인수·신현한·정지웅. 2004.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경영학연구』 33(5).
- 언론정보검색사이트 www.kinds.or.kr.
- 최중서. 2010. 『환경보고서 혹은 웹사이트를 통한 자발적 환경공시의 내용분석: 환경성과 및 경제적 성과와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9(2).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년도. 건설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자료.
- 홍정훈·이수경. 2006. 『파산위험을 이용한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의 관계분석』. 『환경정책연구』 5(3).
- 홍중호·황진수. 2005. 『기업지속가능성 지표 및 지수개발에 관한 시범연구』. 『경제연구』 26(1).
- 환경부. 2010. 『환경백서』.
- 환경부 대기보전국. 각년도. 건설업체 신인도 심사 자료.
- 환경부·매일경제. 2005. 『제7회 환경경영대상 시행요령』.
- 황진택·황진수·홍정훈·홍중호·이재엽. 2003.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연구』 산업자원부.
- Cohen M.A., S.A. Fenn and S. Konar. 1997.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 Are They Related?" Working Paper. Owe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Vanderbilt University.
- Dasgupta, S., Hong, Laplante and Mamingi. 2006. "Public Disclosure of Environmental Violations and Stock Market Responses in The Republic of Korea." *Ecological Economics* 58: 759-777.
- Dasgupta S., B. Laplante and N. Mamingi. 2001. "Pollution and Capital Markets in Developing

- Countrie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2: 310-335.
- EPA. 2000. “Green Dividends?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A Report by the Environmental Capital Markets Committee.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06. G3 Guidelines.
- _____. 2011. G3.1 Guidelines.
- Jamison, A., M. Reynolds, P. Holroyd, E. Veldman, and K. Tremblett. 2005. “Defining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anadian ENGO Perspectives.” *The Pembina Institute and Pollution Probe*.
- Konar S., and M.A. Cohen. 2001. “Does the Market Value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3 No. 2: 281-289.
- OECD. 2009.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Porter, Michael E. 1995. “America’s Green Strategy.” *Scientific American*. 168.